

# 추락 위험 내몰리는 건설 노동자들

### 소규모 현장 안전발판도 없이 공사...광주 지난해 추락사 12명 위험한 공사 신고해도 광주노동청은 "현장확인 어렵다"며 외면

광주지역 일부 소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건설노동자들이 비계(안전발판+난간)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고공작업을 하는 등 추락사고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광주지방노동청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반면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전국 캠페인을 전개하고,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비계 등 안전시설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 9월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비계(안전발판 등 추락방지시설) 단속을 진행한 결과, 광

주노동청 관할(광주·전남·북·제주)에서만 26개 현장 중 17개 현장(65.9%)에서 위법사항 54건(형사입건 47건·과태료 7건)을 적발했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등에서 비계 설치 미흡 등으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2015년 339명, 2016년 366명, 지난해 366명이다. 올해(1~6월)에도 173명이 추락사했다. 지난해 광주청 관할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12명(86%)이 떨어져 숨지는 추락사가 재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방노동청의 공사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행위는 사실상 형식적이다.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광주노동청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 최근 동명동 주민 A씨의 경우도 지난 8월 자택 옆에서 신축 중인 3층 건물 외부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작업 발판과 난간 없이 철구조물에 매달려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뒤 사진을 찍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현장에 나온 근로감독관은 안전도 미작용 문제만 지적할 뿐 안전발판 미설치 등은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가자 해당 건설현장은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안전고리 조차 걸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A씨는 "또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이번에는 (근로감독관이) 불법적인 행위가 적힌 사진을 보내주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불법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신고자에게 오히려 증거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면서 "수차례 민원함에 최근엔 비계를 설치하긴 했지만, 이번엔 (비계가)우리집으

로 넘어와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도 비계 위치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고 있고, 노동청에선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광주지방노동청이 불법공사 행위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건설 근로자 추락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0일 합평군 대동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중국인 근로자가 외벽 작업 중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같은달 16일에는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22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접수되더라도 안전모·안전고리 미착용 등은 위반자들이 부인하면 근로감독관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책임자들과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 전북지사·무주·진안군수 기소 전주·남원시장 등 4명 무혐의

전주지검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12월 13일)를 보름여 앞두고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북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전북도 내 광역·기초단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잡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여만통을 발송한 혐의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

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쳐 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고소·고발 16건·9명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현을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

## "5·18 北배후설' 지만원 방심위 제재 타당"

### 제재 반발 소송에서 또 패소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상을 퍼뜨린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원고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원고의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

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법원은 지씨의 동영상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희 기자 kimyh@

## 도로공사 미납통행료 줄이기 만화홍보물 호남 비하 구설수



○...한국도로공사 부

산경남본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줄이려고

제작한 만화홍보물에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구설수.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부산경남본부가 지난 7월 만들어 배포한 '미납통행료 홍보여행' 홍보물에서 캐릭터 '길동이'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있다고 연락 와부러당께" 등 호남 사투리를 사용하자, 또다른 캐릭터 '차로차'는

"나와 그리 무식하노?" 등 영남 사투리로 꾸짖었다는 것.

○...홍보물을 본 운전자들 사이에선 '마치 통행료를 자주 미납하는 호남사람을 영남사람이 질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산경남본부 측은 "홍보물을 재미있게 만들려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특정지역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홍보물도 모두 회수했다"고 해명.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삼능건설 파산 선고 위기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삼능건설이 파산 선고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21일자로 삼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법원은 14일 동안 즉시하고 기간을 부여해 회사 측이나 채권자가 이의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 즉시하고 만료일은 다음달 5일이며, 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삼능건설은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뒤 2009년 4월 부도처리된 삼능건설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5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70대 남성(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 /연합뉴스

## 109차례 고의사고 12억 챙긴 보험사기

### 조폭 추종세력 3명 구속

조폭 추종세력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모 유동회사 대표 A(39)씨와 공범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순천, 대구 등에서 109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한 A씨는 직원들을 차량에 태워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주행 중 차선을 급격히 바꾸거나 도로에 진입하면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는 공범들과 운전자와 동승자 역할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

상습적인 민원을 받으면 성과평가에 악영향을 받는 보험사 직원들의 심리를 악용해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해 손쉽게 보험보상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조폭 추종세력인 A씨와 공범들은 범죄수익금을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 비용,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조직은 일반 운전자들이 감작스러운 사고로 경향이 없는 틈을 이용해 사고의 원인을 교묘히 피해자에게 전가 및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고를 당하면 침착하게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